



앨런 에프 패커 장로
칠십인

책

가족 역사 및 성전 사업은 개인적인 예배의 정기적인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보 이 스카우트 단원이었던 열두 살 때, 저는 몹시도 원하던 스카우트 활동 장비 하나를 선물로 받았습니 다. 두꺼운 가죽 뒷개가 있는 손도끼였습니다! 그 뒤에 떠난 야영에서 우리 일행은 눈이 많이 내린 습하고 추운 산길을 걸어 날이 저문 후에야 야영지에 도착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온통 커다란 모닥불을 피울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새로운 손도끼를 들고서 쓰러져 있는 나무를 패러 갔습니 다. 나무를 패다 보니, 생각보다 도끼가 잘 들지 않은 것 같아 불만스러웠습니 다. 불만 속에서도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겨우 나무 몇 조각만을 가지고 야영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피운 모닥불의 불빛을 통해 저는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도끼의 뒷개를 벗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짐작하셨겠지만, 그 뒷개는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다른 것들에 주의를 빼앗겼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승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필수 요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두 가지 요건이나 관련이 없는 다른 것들에 지나치게 집중하며 주의를 분산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면 기쁨과 행복으로 인도됩니다.¹ 필요하다면, 우리는 기꺼이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 번에 크게 바로잡는 것보다는 작게 자주 바로잡는 것이

덜 고통스럽고 지장을 덜 줍니다.

얼마 전에 패커 자매와 저는 여러 국가를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여권과 기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예방 접종 및 건강 진단과 비자를 받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서류 검사를 받고, 모든 필수 요건을 만족시키자 입국이 허가되었습니다.

승영할 자격을 얻는 것은 마치 다른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각자 자신의 영적인 여권을 얻어야 합니다. 필수 요건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모든 필수 요건을 반드시 채워야만 합니다. 구원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승영할 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교리, 법, 계명, 의식을 포함합니다.² 그러한 것을 받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 구원받[는] 것입니다.”³ 교회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해 그 일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승영할 자격을 얻는 것은 평생에 걸쳐서 노력해야 하는 목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 그분의 교회를 조직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하는 열다섯 명을 불러 교회를 인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제일회장단⁴ 과 십이사도 정원회⁵는 똑같은 권능과 권세가 있으며, 선임 사도가 교회 회장으로 지명됩니다.⁶ 칠십인은 보조하는 부름을 받습니 다.⁷ 승영의 필수 요건은 그러한 지도자들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지도자들은 우리가 길에 머물도록 가르치고, 해설하고, 권면하며, 경고하도록 부름을 받습니 다.⁸

교회 지침서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개인과 가족이 승영할 자격을 얻게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성하게 제정된 책임에 역점을 둔다. 이러한 책임에는 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하도록 돕고, 선교 사업을





통해 이스라엘의 백성을 집합시키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성전을 건축하고 대리 의식을 행하여 죽은 자의 구원이 가능하게 하는 일이 포함된다.”⁹ 이 네 가지 책임과 기타 모든 법과 계명, 의식은 필수 요건이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그리고 이런 항목을 각각 행함으로써 우리는 영적인 여권에 도장을 찍어 나갑니다.

이 대회 동안 우리는 더 잘 준비되는데 도움이 될 변화들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습니다.

구원의 계획은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데, 아마도 구원의 계획이 “위대한 행복의 계획”¹⁰이라 불리는 이유는 그 때문일 것입니다.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님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남편과 아내가 자녀와 더불어 가정에서 행복하게 지내도록 하는 것”¹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님은 “우리의 성공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로나 주로 우리가 얼마나 충실하게 가정에서 복음을 실천하느냐에 좌우[된다.]”¹²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은 가정에서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것의 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교회 활동이라기보다는 가족 활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회장단 및 십이사도 정원회는 가족 역사 및 성전 사업을 다시금 강조해 왔습니다.¹³ 여러분이 이 강조 사항을 따르면 여러분 각자와 가족이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큰 날이 가까이 왔도다 …… 그러므로 한 교회와 한 백성으로서, 또 후기 성도로서 의롭게 헌물을 주께 바치자. 그리고 주의 거룩한 성전[에서] …… 우리의 죽은 자의 기록이 실려 있는, 받으시기에 온전히 합당한 책을 바치자.”¹⁴

이 “책”은 교회의 패밀리 트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름과 의식 기록을 토대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제가 그 데이터베이스의 기록을 확인하고 추가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그 책 안에 있었으면 하고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리와 성약 128편에는 “이는 [우리의 조상들이] 아니면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 없고,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룰 수 없음이니라.”¹⁵라고 나옵니다.

가족 역사는 단지 계보나 특정

규칙이나 이름, 날짜, 장소 등의 정보에 그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에 집중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가족 역사는 우리가 자신의 역사를 창조해 가는 현재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후손을 통해 앞으로의 역사를 만들어 갈 우리의 미래도 포함합니다. 한 예로, 어느 젊은 어머니는 가족 이야기와 사진들을 자녀들과 나누는 방식으로 가족 역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취하고, 모임에 참석하며, 경전을 읽고, 개인 기도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족 역사 및 성전 사업은 개인적인 예배의 정기적인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과 그밖의 다른 사람들이 이 예언적인 권유에 응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영감을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의 모든 회원이 이 일을 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쿠엔틴 엘 쿡 장로님은 “우리는 [이제] 교리와 성전, 기술을 갖게 되었습니다.”¹⁶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제 가족 역사 사업을 하기가 훨씬 더 쉬워졌으며, 이 일이 제한받는 것은 오직 이것을 얼마나 많은 회원들이 우선순위에 두느냐 하는 것뿐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에는 여전히 시간과 희생이 요구되지만,

수년 전에 비해 비교적 쉽게 모든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들을 돕기 위해 교회는 기록을 수집하고 도구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우리는 가정이나 와드 건물 및 성전에서 이 사업의 많은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애물이 제거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족 역사를 과거에 어떻게 생각했든지 간에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제거할 수 없는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업을 하는 데 주저하는 개개인입니다. 필요한 것은 결심과 약간의 수고뿐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지속적으로 약간의 시간을 내면, 이 사업에서 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디고, 배우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찾아서 성전으로 가지고 간 이름들은 그 “책”¹⁷에 기록될 것입니다.

회원 참여가 놀랍게 증가했음에도, 비교적 소수의 교회 회원들만이 정기적으로 가족을 위해 이름을 찾고 성전 의식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¹⁸ 그것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에 맞서 다투지 말고, 받아들이고 따르십시오! 변화는 위대한 행복의 계획의 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교회 조직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죽은 자와 우리 자신을 위해 완수되어야 합니다. 우리와 돌아가신 조상들의 영적인 여권에 도장이 필요합니다.

세대를 거슬러 가족들을 “결합”¹⁹시키는 일은 오직 성전 인봉 의식으로만 가능합니다. 과정은 간단합니다. 돌아가신 조상의 이름을 찾아 성전에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 또한 그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거의 예외 없이, 누구든지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우리는 실제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많은 부모와 지도자들은 지금 이

세상의 상태와 가족 및 청소년에게 끼치는 세상의 영향력에 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엘리야의 영에 대해 배우고 직접 경험해 보도록 권고합니다. …… 대적이 미치는 강한 영향력으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이 성스러운 사업에 참여하고 그것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청소년 시기뿐 아니라 평생토록 보호될 것입니다.”²⁰

형제 자매 여러분, 방해가 되는 도끼의 덮개를 벗기고 일을 하러 갈 때입니다. 덜 중요한 일을 위해 우리와 가족들의 승영을 희생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업이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회원과 비회원들이 함께 이행해야 할 사업입니다.

저는 영문 찬송가 323장의 가사에서 한 단어만 바꾸어 인용하며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오 하나님의 [성도들이]여!
덜 가치 있는 일 포기하고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
만왕의 왕 섬기세!*²¹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니파이후서 2:22~25; 9:18; 모사이야서 2:41 참조.
2. 경전 안내서, “구속의 계획” 참조; scriptures.lds.org.

3. 신앙개조 제 3조
4. 교리와 성약 107:22 참조.
5. 교리와 성약 107:23 참조.
6. 교리와 성약 107:24 참조.
7. 교리와 성약 107:25~26 참조.
8. 경전 안내서, “제일 회화단”, “사도”, “칠십인”; scriptures.lds.org 참조.
9.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2.2.
10. 엘머서 42:8.
11. 보이드 케이 페커, “증인”,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95쪽.
12. 스펜서 더블유 김볼, “가정에서 복음을 실천함”, 성도의 빛, 1978년 10월호, 158쪽.
13. 토마스 에스 몬슨, “구원 사업을 서두릅시다”, 리아호나, 2014년 6월호, 4~5쪽; 헨리 비 아이어링, “마음을 돌이킴에 관한 축복”, 리아호나, 2014년 7월호, 4~5쪽; Russell M. Nelson, “It All Starts with Love” (video), lds.org/prophets-and-apostles/unto-all-the-world/it-all-starts-with-love; Russell M. Nelson, “Adding ‘Family’ to Family History Work”, lds.org/prophets-and-apostles/unto-all-the-world/adding-family-to-family-history-work; 러셀 엠 넬슨, “사망으로 연결된 세대”,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91~94쪽; 리차드 지 스코트, “죽은 자를 구속하는 기쁨”,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93~95쪽; 쿠엔틴 엘 쿡, “뿌리와 가지”,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44~48쪽;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자녀들의 마음은 돌이켜질 것입니다”,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24~27쪽; Neil L. Andersen, “A Classroom of Faith, Hope, and Charity” (Church Educational System religious educators에게 전한 말씀), lds.org/broadcasts; Neil L. Andersen, “Find Our Cousins!” (RootsTech family history conference에서 전한 말씀, Feb. 8, 2014), lds.org/prophets-and-apostles/unto-all-the-world/find-our-cousins 참조.
14. 교리와 성약 128:24.
15. 교리와 성약 128:18.
16. 쿠엔틴 엘 쿡,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47쪽.
17. 교리와 성약 128:24.
18. 쿠엔틴 엘 쿡,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47쪽 참조.
19. 교리와 성약 128:18.
20.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자녀들의 마음은 돌이켜질 것입니다”,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26, 27쪽.
21. “Rise Up, O Men of God,” Hymns, no. 324.

